〈신앙은 영적 실체이다〉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9/10(주일) 설교 내용 **사도행전 23:1-11**

1.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제사장임을 알고 난 후에는 말을 삼가고 도전을 중단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리더십에 순종하며 따랐던 경험이 있거나 간접적으로 체험한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 질문이,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리더십에게 무조건 굴복하고 순종해야 한다' 는 분위기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사도바울도, 예수님도, 부정하고 신실하지 못한 리더십의 결정과 판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해야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의도하는 바는, 비록 자신의 논리가 맞다는 확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가 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여러 리더십들이 서로 공모하여 재판을 추진합니다. 그 모든 것을 뒤엎고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은, 눈 앞에 있는 리더십들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 리더십들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 신앙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영적 실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런 실체를 경험한 사람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언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밑줄 그은 부분을 참고하되, 위의 세가지 외의 사례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신앙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담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세가지로 설명합니다.
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면 강하고 담대해진다.
②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강하고 담대해진다.
③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 강하고 담대해진다.

이 가운데 자신이 공감하거나 경험한 부분이 있다면 나누도록 해주시고, 혹시 이 세가지 사례 외에 자신이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스토리가 있다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개개인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